

한국어 발화 속도의 지각

남현민(고려대학교 석사 졸업)

본고는 한국어 발화 속도의 지각 양상이 물리적인 발화 속도의 실현 양상과는 다름을 확인하고, 물리적인 발화 속도 이외에 한국어 발화 속도 지각에 영향을 주는 음성적 특질들을 밝히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서울 코퍼스'에서 추출한 발화들에 대한 물리적인 발화 속도 분석과 발화 속도 지각 실험을 함께 수행하여 그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두 발화 속도의 양상을 비교한 결과, 두 가지 측면에서 물리적인 발화 속도와 지각 발화 속도의 차이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사회적 변인에 따른 물리적인 발화 속도와 지각 발화 속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물리적인 발화 속도가 동일함에도 지각 발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 발화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인 발화 속도와 지각 발화 속도를 따로 구분해서 연구하여야 하며, 청자들이 지각하는 발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음성적 특질들이 물리적인 발화 속도 이외에도 따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다음으로 발화 속도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음성적 특질들을 확인한 결과, 평균 음높이, 억양구 음절 수, 휴지 빈도, 평균 휴지 길이가 발화 속도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음높이 범위, 억양구 끝음절 길이는 발화 속도의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리적인 발화 속도(조음속도)를 포함하여 1SD의 변화를 기준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혀진 변인들의 효과 크기를 비교한 결과, '조음속도 > 평균 음높이 > 휴지 빈도 > 평균 휴지 길이 > 억양구 음절 수' 순으로 지각 발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 발화 속도에 대한 각 변인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도 관찰할 수 있었다. 조음속도가 느릴 때에는 평균 음높이가 지각 발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음속도가 빠를 때에는 휴지 빈도가 지각 발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양구 음절 수가 많을 때는 평균 휴지 길이가 지각 발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휴지 빈도가 많을 때에는 평균 휴지 길이가 지각 발화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물리적인 발화 속도와 지각 발화 속도를 구별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한국어 청자들이 발화 속도를 지각할 때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지각 실험과 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밝혔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핵심어(keyword): 지각 속도, 발화 속도